

# “팬들 소원… 음원 발표하게 됐어요”

### ‘프로듀스 101’ 출신 장문복·성현우 디지털 싱글 ‘겁먹지 마’ 내일 공개 “듣는 분들께 희망 드리고 싶어요”

지난여름 엠넷 ‘프로듀스 101’ 시즌2의 인기는 남달랐다. 워너원이라는 대형 신인이 탄생했고 JBI, 레인즈, 사무엘 등 여러 아이돌이 파생됐다.

이 화려한 대열에서 잠시 잊혔던 이름이 있다. 장문복(22·사진 왼쪽)과 성현우(21)다. 프로그램에서 두 사람의 우정은 화제였다. 장문복은 워너 송민호의 노래 ‘겁’을 부르는 무대에서 먼저 탈락한 성현우를 위해 “이제 마지막이라도 현우 꿈까지 안고 가”라는 가사를 선보였다.

프로그램에서 각각 27위, 61위로 아이돌 도전기를 멈췄던 두 사람은 지금도 가수의 꿈을 꾸고 있다. 장문복은 프로그램이 끝난 뒤 각종 예능에 얼굴을 비쳤고, 로레알 파리 샴푸 모델로 발탁되기도 했다. 성현우는 60위권에 들지 못한 연습생을 방출하는 1차 순위전발식 때 고배를 마신 뒤 연습생 생활을 이어왔다.

한파가 몰아닥친 5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서 이들과 마주 앉았다. 찰랑대는 머리를 늘어뜨린 장문복과 흰칠한 키의 성현우는 언뜻 남매처럼 보였다. 두 사람은 오는 8일 디지털 싱글 ‘겁먹지 마’를 낸다면서 인터뷰 내내 들뜬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다음은 장문복·성현우와의 일문일답.  
-어쩌다 함께 음원을 내게 됐나.

▲ 네이버 ‘V라이브’에서 방송을 하다가 팬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이벤트를 했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음원이 나오면 좋겠다’는 소원이 뽑혔다.(장문복, 이하 장)  
-제목이 ‘겁먹지 마’다. 누구에게 하고 싶던 얘기인가.

▲ ‘프로듀스 101’에서 제가 61등을 했다. 1차 순위선발식의 기회를 코앞에서 놓치고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해낼 거라는 메시지를 담아 썼다. 이 곡을 듣는 사람들도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전하고 싶었다.(성현우, 이하 성)

▲ 저도 열등감이 많이 억눌려 있었다. 처음 가수의 꿈을 품었을 때는 힘이 넘치고 이런저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생각만큼 안 돼서.. 하지만 이제 스스로에게도, 사람들에게도 겁먹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었다.(장)  
-60위에 못 들었을 때 참 힘들었을 것 같다.

▲ 그랬다. 간절하게 가수를 꿈꿔왔으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께 가수 오디션을 보고 싶다고 했다가 단칼에 거절당하고, 돼지저금통을 깨서 몰래 서울 가는 기차를 탔다. 무작정 PC방에서 기획사를 검색해서 찾아



갔다.(웃음) 그 이후로도 노래가 좋아서 친구들과 합창팀을 만들고, 전주예고로 진학하고, 계속 달려왔다. 그때 생각이 났다.(성)  
-이렇게 음원을 내게 된 소감은.  
▲ 정말 감사하다. 사실 ‘프로듀스 101’ 전후로 생활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그때나 지금이나 연습실로 출근하는 일상은 마찬가지다. 저희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마냥 좋다.(장)  
-오디션 프로그램이 우후죽순 생겼다. 동료들이 출연하는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  
▲ 마음이 아프다. 혼자 땅을 치면서 우는 모습이 상상이 돼서다. 그게 어떤 심정인지 너무 잘 알고, 사실 팬들 덕분에 음원을 내게 됐지만 저는 지금도 같은 처지다.(성)  
▲ 그중 ‘프로듀스 101’에 출연했다가 또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온 친구들은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

하고 있을 텐데, 잘됐으면 좋겠다.(장)  
-연습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 대부분 어린 친구들이지 않나. 심리적 압박감이 크다는 것을 잘 안다. 마인드 컨트롤을 잘하길 바라고 연습생들끼리 서로 힘이 돼주면 좋겠다.(장)  
▲ 사실 제가 조언할 입장은 아니지만, 계속 뒤라도 하다 보면 기회는 잡힐 것이다. 망하니 앉아있지 말고, 눈앞에 ‘포기’라는 글자가 보여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말해주고 싶다. 다음 날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성)  
-앞으로 두 사람이 함께 활동하는 것인가.  
▲ 일단 우리는 프로젝트 유닛이다. 계속 이대로 활동할지, 아닐지 모르지만 더 열심히 해서 잘 되고 싶다.(장)  
▲ 저희 유닛이 계속 가든, 팀에 합류하든, 언제나 노래할 수 있도록 계속 준비하고 노력하겠다.(성)

# MBC, 마봉춘이 돌아온다

### PD수첩 등 시사교양 프로그램 방송 재개

파업과 제작거부 등으로 3~5개월여 방송을 중단했던 MBC TV 시사교양 프로그램들이 다시 돌아온다.

MBC TV는 6일 “만나면 좋은 친구, 마봉춘이 돌아온다”며 “시사교양 제작진들이 다시 힘을 모아 정상화 이후 MBC 공영성 재건의 깃발을 높이 올렸다”고 밝혔다. PD수첩은 오는 12일과 19일 밤 11시 2부작 ‘특별기획’으로 5개월 만에 방송을 재개한다.

제작진은 “이번 특별기획은 ‘방송장악’을 주제로, 과거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 진상을 낱낱이 밝힌다”며 “2010년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문건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원문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MBC스페셜’은 14일 밤 11시 ‘만나면 좋은 친구 MBC의 고백(가제)’으로 돌아온다.

제작진은 “국민이 바라본 MBC, 내부의 시선으로 바라본 MBC, 무엇이 우리의 좋은 친구를 변하게 했을까를 돌아보며 반성문을 쓸 것”이라며 “이어 앞으로 시청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스스로 진단체한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28일 밤 11시에는 ‘춧불 1년 특별기획, 블랙리스트, 촛불을 만나다’가 방송된다.

제작진은 “블랙리스트 PD와 블랙리스트 작가, 블랙리스트 출연자들이 작년 겨울을 뜨겁게 달궜던 촛불의 주역들을 만난다”고 밝혔다. 이어 “축제가 승화된 촛불, 각종 장외가 만발하던 거리 위의 민주주의, 촛불의 주역으로 변신한 평범한 시민들, 무엇이 그들을 거리로 나서게 했는지 돌아보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대폭 강화

### 방통위 ‘제4기 방통위 정책 과제’ 발표 보도제작 자율·중립성 등 엄정 심사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 재허가나 재승인 때 제작의 자율성과 중립성, 공적적 무이행 의지를 엄정하게 따지는 등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 오보와 부당징계 방지 등 재승인·재허가 조건에 대한 이행실적도 점검해 위반 시 제재한다.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방송통신 환경 변화 및 주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4기 방통위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통위 내 자문기구인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운영해 올해부터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방송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보도제작의 자율성과 중립성 등을 엄정히 심사하고 편성위원회 기능의 활성화, 오보와 막달 및 부당해직·징계 방지의 조건 이행실적도 점검한다.

방통위는 지속 성장이 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방송서비스 분야의 외주제작 환경을 개선하고 내년까지 ‘방송사-외주사 간 상생협력’을 통한 방송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방송 분야의 오래된 과제 중 하나인 지상파 중간광고 등 방송광고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중장기적으로 방송광고 규제체계를 단순화하고 기본적인 규제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넉거티브 광고 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TV 프로그램 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5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5 2TV 생생정보(재)	00 MBC 뉴스투데이 20 아시아의 전통시장 50 억류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30 좌충우돌 만국유람기	25 닥터 365 30 해피 시스터즈
9	30 KBS 뉴스	00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만만	30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흑기사(재)	50 로봇이 아니냐(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생로병사의 비밀(재) 50 UHD 한식(재)	50 내 남자의 비밀(재)		00 애니캐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30 영상앨범 산(재)		00 법상 차리는 남자(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특 보원설계
1	00 사랑의 가족 50 공룡 메카드	50 생생정보 스페셜		55 닥터 365
2	20 반지의 비밀일기 50 김성훈 고함소나 스페셜(재)	50 자동차부품상 위키 2	35 똑? 똑! 키즈스쿨	00 뉴스브리핑
3	00 특집 캠프 AI, 대항해의 꿈(재) 55 UHD 한식(재)	20 TV 유치원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05 뽀글이 사랑해 35 헬로킴지 놀라운 자연 이야기 2	
4	00 4시 뉴스집중	00 누가 누가 잘하나	05 위대한 영화의 탄생지 (해리포터의 스코틀랜드)	00 여행배틀 로그인 코리아 55 지식 통조림
5	00 KBS 뉴스 5 10 공감다큐, 사람(재) 35 UHD 한식(재)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느린느린 나무늘보 15 티빙메카드 R 3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00 MBC 이브닝 뉴스 30 전성에 웬수들 (재)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40 나눔의 행복, 기부(재) 55 UHD 한식(재)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맛깔나는 남도 전통시장 푸드쇼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밤상	50 내 남자의 비밀	15 전성에 웬수들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25 미워도 사랑해	30 글로벌24 55 흑기사 (재)	35 신비한TV 서프라이즈 스페셜 55 세상기록 48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40 미래기획 2030(재)			
10	35 KBS 뉴스라인	00 흑기사	00 로봇이 아니냐	00 이판사판
11	00 청소년드라마 안단테(재) 55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10 해피투게더 스페셜	10 정용성의 인생극장	10 자기야-백년손님
12	45 인간극장 스페셜(재)	40 세상의 모든 다큐	10 발칙한 동거 빈방 있음 스페셜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통일의 길 (예제를 영재 발굴단)	10:30 한국기행(재) (김치 한 그릇 4부 가문의 비법)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불고기 낙지전골) 11:20 세계테마기행(재) (공꾸넌 겨울 핀란드 4부 유유자적 웰싱키)	14:30 레인보우 루비 15:00 로봇 발명왕 러스티(재) 15:30 호기심 나라 오기도 15:45 레전드하어로 삼국전 16:15 주사위 요정 큐비주 16:30 수학이 아호(재) 16:45 덩동영 유치원1~2(재) 17:15 웅감한 소방차 레이 17:30 똑딱맨 17:45 뽀롱뽀롱 뽀로로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4 19:00 사이언스타 Q 19:30 EBS 뉴스 19:5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20:40 다큐 오늘 (청어국수) 20:50 세계테마기행 (하루나 마타타 케냐 4부 호수 위의 불꽃 세) 21:30 한국기행 (마을따라 산골마을로 4부 행복이 별건가요) 21:50 과학 다큐 비운의 (인공지능 2부-이머젠택션 게임) 22:45 다문화 고부열전 23:35 불량시니어클럽 (트로트 댄스 그룹 도전기) 24:05 지식채널e 24:10 EBS 스페이스 공감

知天命이 오는 **오늘의 운세** 12월 7일(음 10월 20일 戊辰)

<b>子</b> 48년생 당라지사에 영향을 미칠만한 재만 요소들이 연쇄적으로 나타난다. 60년생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라. 72년생 현재의 형세에 얽매었다면 대국을 살릴 수 없으니라. 84년생 분명하다면 확실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행운의 숫자 : 02, 06	<b>午</b> 42년생 작은 국면을 넘어 긴 안목으로 임하라. 54년생 제대로 값어치를 하게 될 것이다. 66년생 변화무쌍할 것이니 각오하고 임하라. 78년생 천치만발하니 참으로 현란하겠다. 90년생 어떠한 충격에도 변하지 않는 주관을 가져라. 행운의 숫자 : 90, 48
<b>丑</b> 49년생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길조를 따게 되니라. 61년생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바를 저나라에게 깨닫게 된다. 73년생 확인만 잘 해도 사고를 예방한다. 85년생 과정은 힘들지 몰라도 끝맺음만큼은 알맞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5, 83	<b>未</b> 43년생 수량이 아니라 질의 문제가 될 것이다. 55년생 후회할 때는 이미 늦다. 67년생 별로 마음에 차지 않을 것이다. 79년생 대부분의 문제점은 자신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다. 91년생 조금씩 습동이 터지면서 자생력이 되어 준다. 행운의 숫자 : 87, 69
<b>寅</b> 50년생 과욕을 부린다면 후환을 물고 올 것이니 무리가 따르지 않게 하라. 62년생 기본적인 것이 누락되어 예를 먹겠다. 74년생 의심스럽다면 다시 살펴봐야 할 것이다. 86년생 시리에 밝은 이의 충고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21, 49	<b>申</b> 44년생 눈 깜박할 사이에 전개될 수 있다. 56년생 현상 유지나 정제는 무의미하다고 볼 것임으로 다소 힘들더라도 밀어붙여야 한다. 68년생 치밀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80년생 고생한 만큼에 비례한 대가가 주어지리라. 행운의 숫자 : 38, 05
<b>卯</b> 51년생 침착해야만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느니라. 63년생 주변인들이 어떠한 말을 할지언정 소신껏 판단한다면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75년생 파장이 일면서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 87년생 사실을 확인한 후에 처리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44, 84	<b>酉</b> 45년생 구유일모의 기회이니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57년생 지금의 현상은 일시적인 뿐이므로 아무것도 아니니 가볍게 넘겨도 될 일이다. 69년생 놔두자니 거추장스럽고 버리자니 아까울 것이다. 81년생 참된 가치와 함께 하자. 행운의 숫자 : 04, 20
<b>辰</b> 52년생 전면적으로 거사를 도모할 수 있는 날이다. 64년생 재물이 들어오는 운세로 향하고 있으니 호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자. 76년생 개선하지 않으면 문제점이 속출한다. 88년생 갑작스러운 변동으로 인해 걱정거리가 생긴다. 행운의 숫자 : 29, 94	<b>戌</b> 46년생 수량이 아니라 질의 문제가 될 것이다. 58년생 일단 예봉을 피한 다음에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70년생 성과는 미미할지라도 의미는 대단히 크다. 82년생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빠지면 아니 되겠다. 행운의 숫자 : 33, 00
<b>巳</b> 53년생 부수적인 것에 얽매어서 주된 것을 소홀히 할 수 있다. 65년생 실속을 행해야 할 때이니라. 77년생 점진적인 활동이 안정 계도로 이끌 것이다. 89년생 탄력이 붙을 때 동력을 집중 시켜서 운산을 내는 것이 맞다. 행운의 숫자 : 92, 49	<b>亥</b> 47년생 자신감에 취해서 가볍게 여가다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었다. 59년생 확신을 갖고 한 발 날려도 될 시기이니라. 71년생 협조자를 자칭하는 이가 나타나니 판국이다. 83년생 주의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8, 91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